

# 조강훈

✉ tigerlove95@naver.com

☎ 01066112574 | 📅 1995년생 | 🏠 1년차

## 기술스택

typescript

react

next.js

redux

React Query

## 경력

총 10개월

### 라스트일마일

개발팀 / 팀원

2021.11 - 2022.07 / 8개월

Material-UI

TypeScript

Electron

GraphQL

Puppeteer

React

어드민 페이지 개발

다팔자 프로젝트

유지보수 작업

Material-UI를 이용한 퍼블리싱

Puppeteer를 이용한 TMON 등록기 개발

리렌더링 이슈 개선을 통한 성능 최적화

Type 개선

### 똑똑한개발자

프론트엔드 / 인턴

2022.09 - 2022.11 / 2개월

Next.js

Redux

TypeScript

Chakra UI

React Query

스타우터 프로젝트

랜딩 페이지, 폼 등록/수정 페이지, 의뢰 관리 페이지 개발

Chakra-UI 를 사용한 퍼블리싱

React Query를 이용한 Rest API 통신

SSR 구현

## 학력

독산고등학교 / 고등학교

2014.02

## 안양대학교 / 대학교(4년)

정보전기전자공학과

2021.02

학점 3.55/4.5

### 링크

<https://github.com/San-Goon>

Github

<https://latest-portfolio-three.vercel.app/>

포트폴리오

### 교육이력

**메가바이트스쿨 프론트엔드 과정**

패스트캠퍼스

2022.07 - 2022.11

각종 프론트엔드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습득  
"똑똑한개발자"와 교류 인턴 진행

### 자기소개서

#### 생각의 마술사 조강훈 입니다.

평소에도 엉뚱한 생각을 자주하고, 특이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성향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좋은 성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웹 개발 자체가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지는 웹을 개발하는 분야인 만큼, 클라이언트가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접근 가능한 대부분의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버그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또한, 코드를 완성한 후에도 조금 더 빠르고 유지보수성을 높게 코드를 짤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며, 결과를 저의 능력 선에서 가장 좋게 내려고 항상 노력하는 개발자입니다.

#### 웹 개발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

본래 전공은 정보전기전자공학으로, 개발을 하긴 하지만 웹 개발에 있어서는 비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교 4학년 당시 전기 기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먼저 취업한 친구들과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정적인지는 몰라도 좀 인생이 재미있겠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며 다른 길을 찾아보던 도중, 전공 과목으로 몇몇 개발 과목을 들었을 때 동기들이 개발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볼 정도로 높은 흥미와 성적을 보였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때 개발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작업하는 그대로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태 개발을 하며 정말 잘 선택했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정진할 예정입니다.

#### 성격의 장단점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래는 건의하고 의견 제시하는 것에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는데 개발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생산적인 것은 의견 제시를 하고 건의 사항은 편하게 건의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 제 생각에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드리는 편입니다.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토론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만든 작업 물과 의견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아 진행을 할 때도 그 생각을 갖고 임해 회의마다 팀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용하며 팀원들에게 많이 배워가며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배움에 욕심이 있습니다.

전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개발자 분들을 보며 느낀 것이 "나는 매우 부족하다." 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고, 부트캠프를 통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부트캠프를 마무리한 지금에도 문서, 강의 등을 보며 기본기를 쌓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해 기존에 진행했던 개인 프로젝트들을 리팩토링하며 성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시기를 잘 못 잡는 편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에 대한 단점으로 보는데,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 질문할 타이밍을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사수 분께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오래 생각 말고 모르는 건 빨리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이번에 "똑똑한개발자"에서 인턴을 진행하며 그 점을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했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